청년 구직자 81% “체감 고용률 40% 미만”

원인으로 경제침체 따른 기업 채용 규모 축소가 가장 많아
구직활동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직무경험 기회 부족’
중기중앙회 “참 괜찮은 중기 플랫폼 고도회 계획 반영할 것”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4월16부터 30일까지 청년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청년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구직자 10명 중 8명 이상(81.1%)이 현재 체감하는 청년고용률을 ‘40%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2021년 2월 기준 42%인 실제 청년고용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고용 관련 청년 구직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체감고용률을 40% 미만으로 응답한 청년들은 그 이유에 대해 ‘최근 경제침체에 따른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73.5%),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따른 일 경험 기회 부족’(70.3%) 등을 들며 전반적인 일자리의 부족을 지적했다. 이러한 구직시장에서 청년들은 ‘불안’(82.6%), ‘무기력’(65.3%), ‘우울함’(55.3%)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주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취업난이 청년들의 심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청년구직자는 구직활동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의 기회 부족’(68.9%)을 꼽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 점수 등 정량적 스펙 갖추기’(51.8%),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과 구직활동의 병행’(43.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청년구직자의 절반 가까이(49.8%)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해 7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취업 관련 인식 조사」에서 향후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질문에 ‘중소기업’(68.6%)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결과와 상응하며,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청년구직자의 수요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현재 청년들은 구직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1순위)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 보장’(27.9%)을 꼽았으며, ‘임금 만족도’(25.9%), ‘건강한 조직문화·사내 분위기’(12.9%)가 그 뒤를 이었다.

다양한 취업지원정책에 대한 청년구직자의 경험들을 조사한 결과, 청년취업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3.4%에 그쳤다. 그 이유로 ‘청년취업지원정책 혹은 서비스의 시행을 알지 못해서’(35.2%),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조건 등 관련 정보 탐색이 어려워서’(33.3%) 등이 지적되면서 정책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안내의 부족이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동욱 중기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 부장은 “청년구직자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 고용시장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이번 조사는 향후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의 객관적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를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새로운 인재의 유입이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들을 이어주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의 고도화 계획에 반영해 청년구직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중기 구매촉진·판로 확대 지원

LX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LX)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전 지원을 위해 우선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LX는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공공구매 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구매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LX 주최 전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상담회에는 LX,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북개발공사 등 세 개 기관과 에스엠테크, 수테크놀로지, 하나솔루션, 팩솔루션, 사각사각 등 다섯 개 기업이 참여했다.

공공구매 상담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 사회적 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과 공공구매 담당자가 1대1 매칭 상담으로 진행됐다.

앞서 LX는 지난 1월 사회적 경제기업제품 공공구매 상담회, 2월 공공기관 합동 마스크 공공구매 상담회, 4월 지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상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20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왔다.

LX 곽희도 경영지원실장은 “LX 등 공공기관이 이번 공공구매 상담회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상담회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힘과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전 지원을 위해 우선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순 반복 업무, 규칙 따라 자동 수행

전개공, RPA 도입 효율성 확대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은 매년 수만건이 넘는 지출업무 등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해 업무효율성을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RPA란 단순 반복 업무를 규칙에 의해 로봇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공사는 지난 1월부터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RPA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와 담당자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주택관리 업무, 급여업무, 지출업무 등 개선효과가 큰 업무를 선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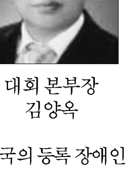
특히 임대관리 업무 중 징수 및 수납 전과정에 RPA를 적용한다. 매월 20일쯤 징수결정 후 이후 가상계좌, 카드, 지로, 자동이체 내역을 찾아 수납처리한다. 매달 처리해야 하는 단순하지만 정확히 해 내야 할 일들이다. 향후, 공사는 사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RPA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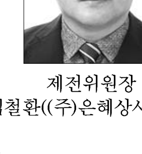
/김윤상기자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제15회 전국 장애인가요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전국장애인가요제를 실시하오니
장애인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화예술 참여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찬 가요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성원과 지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본부장
김양옥


제전위원장
김철환((주)은혜상사 대표)

1. 참가대상 전국의 등록 장애인 만16세 이상
2. 참가제외 ① 전국대회에서 대상, 1등, 최우수상
② 상업적인 성격으로 대회만 나오는 자
③ 주최 측의 참가규정에 따르지 않는 자
3. 접수처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 5층 (사무국)
전화 (063)286-6678, 231-6669
4. 기 타 ① 참가비 없음 ② 예선에 불참자는 제외함

◎ 일 시 : 2021년 5월 8일 (예선 오전10시, 본선 오후 2시 30분)
◎ 주 최 :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 주 관 :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전라북도등록단체)
◎ 후 원 : 전라북도, (주)은혜상사, 휴네이처, 새빛장애인자립센터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수정과 한울타리협의회

농업인 노후생활 개선 ‘농지연금’으로

농어촌공 전북본부, 만65세 이상… 가입하면 6억원 이하 농지재산세 전액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가 작년까지 1600농가에 360억원을 지원한 가운데, 올해에는 96억원의 농지연금 사업비를 지원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실제 영농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원 이하 농지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예를 들어, 74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96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최근에는 농업인들의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본인의 자금 수요에 맞게 다양한 연금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종신정액형 외에도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 10, 15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 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에 접속하면 본인의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김윤상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10월까지 국유림 대부지등 실태조사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오는 10월 말까지 관할 국유림 내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등) 223ha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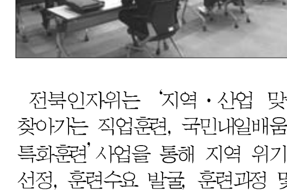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 및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73건, 223ha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금번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가 파악되면 시정 조치하고, 일정기간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 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위기산업 종사자 맞춤형 직업훈련

전주상의 전북인자위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는 6일 전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인력양성 유관기관을 비롯한 사업주 단체 및 협회, 지역대학, 직업훈련기관을 포함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직업훈련 사업설명회는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가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지역·산업 맞춤형 찾아가는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개최된 설명회로 군산지역을 비롯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산업 업종 종사자들의 고용유지와 이·전직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북인자위는 ‘지역·산업 맞춤형 찾아가는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사업을 통해 지역 위기산업 선정, 훈련수요 발굴, 훈련과정 및 훈련공급기관 선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산업 업종으로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인 조선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여행업, 문화·예술·공연업, 운송업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훈련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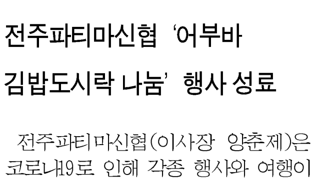
코로나19 지역사회 어려움 극복하자

전북농협, 방역 의료진 응원 흑곶감 양갱 등 간식 전달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과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송혁)는 6일 코로나19 전주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운주농협 흑곶감 양갱, 샌드위치, 음료수 등의 간식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의료진을 응원했다.

박병철 단장과 송혁 지부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 시너지협의회 소속 범농협 법인들은 시군지부와 함께 시군별로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지친 의료진을 방문해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파티마신협 ‘어부바 김밥도시락 나눔’ 행사 성료

전주파티마신협(이사장 양춘제)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와 여행이 제한됨에 따라 파티마신협홍보봉사단과 함께 어린이날맞이 ‘어부바 김밥도시락(樂)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전주파티마신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날을 마음껏 즐길 수 없게 된 지역의 아동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 김밥과 유부초밥을 직접 만들고 과일, 소세지 등을 넣은 어부바 김밥도시락(樂) 100개를 아동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수자원공 등 섬진강 유역 디지털 트윈 물관리 추진

전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디지털 강소기업들과 손을 맞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하천·댐 등 유역관리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돼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국가 인프라 지능 정보화 사업’은 국가 주요 인프라에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해 4차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능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8개 기업((주)올포랜드, 뉴레이어(주), (주)무한정보기술, 베스핀글로벌(주), (주)딥인스펙션, 노아에스앤씨(주), (주)아이팝, (주)스탠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최초로 섬진강 유역 물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댐·하천 연계 플랫폼을 섬진강 유역에 시범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고정밀 3D 공간 정보화, ▲댐·유역 실시간 데이터 연계 모니터링, ▲하천 제약사항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스마트 조기 경보 등을 구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